

## 여성

# 문화예술계에서 여성의 불평등과 빈곤이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2023. 10. 6.(금) 9:00-11:30

주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배경

2021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생애 전반에 걸쳐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보다 높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문화예술계도 다르지 않다. 2021년 광주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여성 예술인의 개인소득(1,535만 원)은 남성 예술인 개인소득(2,251만 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문화예술계는 전반적으로 여성 인력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분야인데 사적인 인적 관계망 안에서 이뤄지는 프리랜서 중심의 문화·예술 노동의 성격상 결정권자의 성인지 정도에 따라 노동의 구조가 결정되는 불평등성,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의 영향력과 도제식 교육으로 인해 상급자의 지시 및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 등 위계가 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계구조는 여성 예술인들을 경제적 위계 속에 머물게 하고, 성폭력, 성차별, 인권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사전적 정의로 불평등은 권리, 의무, 자격 등에 차별이 있어 평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소득, 물질, 지위, 권력 등의 희소자원들이 사회적 맥락에서 차별적으로 분배되는 것도 사회적 불평등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 개념으로 사회구조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을 비롯한 인권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주제회의에서는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성차별과 빈곤의 문제 등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불평등한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목표

사회구조적 문제로 여성문화예술인에게 미치는 빈곤과 불평등 사례를 국내외 발제를 통해 공유하고, 여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규범을 점검함으로써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봄.

## 중점 논의사항

1. 한국 여성문화예술인의 빈곤과 불평등 사례
  - 성별 직무분리와 성별 임금격차
  - 임신·출산 등 여성 재생산권에 대한 인식 부재와 이로 인한 경력단절
  - 여성인권(젠더 폭력 증가 등)의 악화
2. 젠더 관점(성인지적 시각)의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규범을 확인하고 이행방안 논의
  -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에 따른 시행규칙 등 보완점 논의
3. 문화예술계의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국내, 국제적 연대 방안 논의

